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2023년도  
제6호

# 사랑의 메<sup>+</sup>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 전화 02-796-644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mailto: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처음, 시작)와 ‘오메가’(마지막, 마침)이며, 또한 영원히 ‘알파’와 ‘오메가’로 존재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모든 창조물과 개개인의 생명의 원천이자 목표입니다. 성탄 시기가 되면 형언할 수 없이 숭고하고 영원하신 분께서 구유에 누운 아기 모습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 아기는 우리의 잘못, 약점과 죄를 묻지 않습니다. 아기는 그저 우리의 존재와 사랑을 기뻐합니다. 아기는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우리가 안아주고 사랑해주길 고대합니다. 연약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는 아기는 영원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영원하신 아버지께 완전하게 갈 수 없습니다(요한 14,6 참조).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여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계시는 구유로 가서, 그분을 우리의 일상에 모시기를 바라

**“그분을 당신 땅에 곧 우리 마음에, 우리 일상에, 우리 삶의 이야기 안으로 모십시오.”**

십니다.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또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스트레스 상황이든 아니면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이든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로 다가오길 원하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와 목동과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아기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경배합시다. 아기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요한복음 머리글에 나오는 이 문장이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1-12)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나 그분에게로 갑시다. 그분이 당신 땅에, 우리 마음에, 우리 일상에, 우리 삶의 이야기 안에 들어오게 합시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완성하는 분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마태 28,18)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때와 장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

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그분의 길은 우리 길 위에,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 위에 드높이 있기 때문입니다(이사 55,9 참조). ACN을 통해 접하는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구세주이신 그분께 어린아이처럼 믿고 의탁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이고 위안인지요? 그분은 온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기부금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입니다.

구유 옆에는 그분의 어머니이자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도 계십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특히 이번 성탄절에는 성모님의 은총과 전구에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ACN의 모든 직원과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기쁘고 은총 가득한 성탄절을 기원합니다.

**ACN 지도신부 안톤 레서**

*P. Anton Lese OP*



##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은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회원 정보에서 기부자의 ①이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를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 확인 또는 수정이 완료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정보를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ACN 한국지부 사무실 02-796-6440,  
010-7475-6440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주신 ACN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레 주교좌 대성당(레바논)의 성탄 이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을 때면, 성경에 언급된 장소 중 많은 지역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종종 감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루카 복음에서 언급하신 레바논 남부의 티로, 바오로 사도가 회심을 경험한 다마스쿠스(시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구약성경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출생지인 도시 우르, 오늘날의 바그다드 부근에 있는 바빌론, 예언자 요나의 외침에 주민들이 회개한 니네베도 있습니다. 이 장소는 모두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

하나에 의해 전교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중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처럼 이들에게도 신앙 때문에 오늘날까지 박해를 당하거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차별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느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 신앙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





성탄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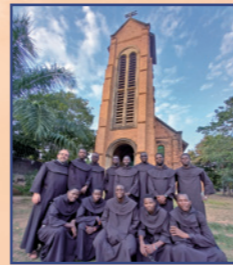
# 아기 예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채워주실까요?

가르멜 영성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경배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자신이 설립한 수도원마다 아기 예수상을 세웠으며,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관상에 젖어 들고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아기 예수상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성탄 시기가 되면 기쁨에 넘쳐서 아기 예수상을 팔에 안고 춤을 추며 주님의 탄생을 기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선물을 전하러 난민촌을 방문하는 가르멜 수도자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가르멜 수도회에는 성소자가 많아 기쁨이 더합니다. 현재 33명의 젊은이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저개발국에 속하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지역 대부분이 반군 집단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곳에서 성소자들의 양성비를 마련하는 것은 수도원으로서는 큰 과제입니다.



기쁨으로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수도자들

이 젊은 수도자들은 자국민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가게 해달라고 아기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젊은 가르멜 수도자들의 청원을 들어주시도록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70,000원으로 수도자 한 명의 한 달 양성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유에서 성탄절 환호가 크게 들려올 것입니다! 📞

## 안전을 선물합시다

라왈핀디(파키스탄)의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소속 수도자들이 외딴 지역의 학교나 본당을 방문하려면 자동차로 보통 7~8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이들이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의 특히 위험한 지역을 방문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수도자들의 차는 이미 많이 낡았습니다. 연료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자주 고장도 나지요. 자동차 고장이 파키스탄 여성들에게도 위험하지만, 성경과 묵주, 십자가가 가득 담긴 상자를 싣고 다니는 수도자들에게는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별받는 소수이지만, 신자들에게

희망과 위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그들 편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이다(Ada) 수녀의 말입니다.

여성 수도자들에게 새 차가 긴급히 필요합니다. 열악한 도로 상황에 적합하고, 공간도 넓은 차가 필요하지요. 주로 미디어 사도직을 담당하는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수도자들은 다량의 책과 학습자료를 싣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성 수도자들이 넓고 튼튼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는 56,0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후원자 160명이 각자 350,000원씩 기부한다면 빠른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씩씩하게 나아가는 여성 수도자들에게 안전을 선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외딴 마을을 방문하는 두 여성 수도자



책들을 보며 감탄하는 어린이들

성탄 선물

# 중동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성탄절

시리아와 레바논의 여성 수도자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38,000여 명에게 성탄절을 맞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ACN 후원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청합니다.



시리아: 일자리가 생긴 것은 그에게 성탄 기적입니다

문의 02-796-6440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사)고통받는교회동기헌금지원부

오늘날 시리아인의 90%가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조국은 늘 전쟁 중인 모습뿐입니다. 레바논이 현재 겪는 위기는 불과 4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시절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많지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닥친 고난은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중동의 스위스’라 불렸던 레바논은 이제 인구의 70%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중산층 까지도 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새 옷은 감당하기 힘든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모자 달린 방한용 점퍼, 바지, 스웨터 또는 신발이 작아지면 부모들은 절망하다시피 합니다. 점퍼 한 벌이 한 가정의 한 달 수입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중고 의류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중동의 겨울도 매섭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여성 수도자들은 총 38,00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에게 새 옷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레바논 리옹의 성 요셉 수도회 소속 레이몽다 사테 수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선물 그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남을 수 있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탄 성극, 노래,

교리 교육과 함께 작은 축하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시리아의 예수 마리아 수도회 소속 애니 데머지안 수녀는 의류 선물이 어린이와 가족뿐만 아니라 의류를 만드는 재봉사들에게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재봉사로서의 일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파디 이브라힘에게는 ‘기적처럼’ 의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알레포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었지요. 그의 손녀는 학비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파디는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고 도와 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날 의류 제작 일부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애니 수녀의 설명입니다. 대량 주문을 통해 많은 가정이 새 희망을 얻었습니다.

20,000원이면 시리아 어린이 한 명에게 따뜻한 점퍼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28,000원으로 레바논의 한 어린이에게 작은 성탄 축하 행사에서 새 옷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은 아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며, 아기 예수님께서 이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아이들의 관점이 전반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부모 역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지요. 시리아와 레바논 가족들이 따뜻하고 기쁜 성탄절을 맞을 수 있도록 도움시다! 📞



레바논: 선물 준비가 한창입니다!

레바논: 성탄절에는 어린이들에게 옷을 주고 싶습니다.



# 성탄 캐럴에 묻힌 공습 사이렌

전쟁 중에 성탄절을 맞이하다 보니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성탄 캐럴도 여전히 크게 울려 퍼지지만, 눈물도 더 많아집니다.” ‘주님의 종인 마타라의 동정 성모 수도회’의 여성 수도자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탄생에서 기쁨을 얻은 여성 수도자들은 이 기쁨을 계속 전파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집마다 다니면서 성탄 캐럴을 부르고, 주님 탄생 장면을 재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여성 수도자들은 이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정전된 집에서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도 전쟁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크라마토르스크 출신의 자비의 마리아 수녀가 지난 성탄절을 회고하며 한 말입니다.

90세가 넘는 나이에 걸음걸이도 편치 않은 요시프는 특히 행복해했습니다. “그가 전쟁 중에 어린이들이 부르는 성탄 캐럴을 다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마리아 수녀는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요시프는 며칠 후에 죽음을 맞았고, 그에게는 마지막 성탄절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는 행복하고 품위 있게 떠났어요.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성탄 캐럴 가사가 요시프의 귓가에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잘 자요, 아기 예수님, 잘 자요. 제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는 이 땅과 저곳 낙원에서 당신 곁에 편히 쉬어요.’” 수녀는 감동적으로 전합니다.

이런 고통의 시기에 꼭 성탄절을 지내야 하는지 묻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타라 수도회 원장인

강생의 마리아 수녀는 이런 이의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여성 수도자들은 전쟁 중에 맞이한 첫 성탄절에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전기가 끊겼었어요. 성당에는 이콘 옆으로 촛불만 켜져 있었고, 이콘 속 주님만 보였지요. 여성 수도자들 자리에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전구가 켜져 있었어요. 사방이 어두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여성 수도자들은 수도원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과 성탄절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혼자가 아니라고 알려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성탄 캐럴을 불렀어요.” 수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런 성탄절을 보내면서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원했던 많은 부수적인 것이 사라지자,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경험만으로도 아주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뿔뿔이 흩어졌던 많은 우크라이나 가족이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여전히 성탄절을 보내고, 수많은 난민도 고향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마타라 수도회 여성 수도자들과 600명이 넘는 다른 수도회 수도자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다시 눈물을 닦고 기쁨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성탄 캐럴에 공습 사이렌이 묻히겠지요. 이들을 잊지 맙시다! 🙏



# 시리아의 성탄 이야기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다시 웃게 된 마르레과 야서 부부와 자녀들!

“오늘날 베들레헴은 천국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별 대신 천사들을, 자연의 태양 대신 정의의 태양을 한껏 끌어안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서 태어난 성 요한 크리스토무스는 주님의 탄생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던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관에는 거룩한 아기를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기는 출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헤로데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으며 부모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마리아와 요셉이 아무도 모르게 시리아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추운 겨울에 갓난아기가 따뜻하게 지내기도 힘듭니다. 집은 무너졌고, 친구들과 친척들은 다에시(IS,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에 납치되거나 박격포 공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헤로데의 후계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 지금도 라헬은 자식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성 요셉은 이제 일자리가 없습니다. 모아둔 돈도 이미 다 써버렸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일상적인 것도 이제는 사치입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얻고자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웃 아이들을 보면서 마리아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지만, 오늘날은 시리아인의 90%가 가난합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외국이나 안

전한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날마다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경제 붕괴, 전염병, 지진 등으로 모든 게 폐허가 된 것 같습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압후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이사 9,1)

스스로 ‘가장 작은 이’와 동일시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들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리아의 성탄 이야기가 시작보다 더 행복한 결말을 맺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선행의 영웅’이 된 많은 후원자 덕분에 우리는 전쟁 시작 이후로 수천 명의 시리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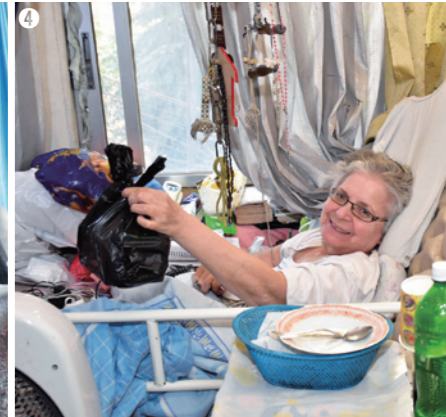
지하디스트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알 카리아타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주택 14채를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난민들이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어르신 300명에게 따뜻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들이 삶의 터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때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이 그랬듯 이들도 스스로 일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 청년 캠프 등을 지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천사들이 선포한 기쁨이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려졌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들에게 계속 도움의 손길을 내밙시다! 🙏

- 1 마르마리타에 있는 피난민 가족을 위한 ‘거처’
- 2 다에시(IS,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에 의해 파괴된 탈탐르의 교회
- 3 알레포: 예수님 탄생 장면을 재현하는 어린이들
- 4 방문객과 따뜻한 음식에 기뻐하는 여성



1 아기 예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마리아 수녀  
 2 마지막 성탄절을 보내고 며칠 뒤 죽음을 맞이한 90세가 넘는 요시프(왼쪽)  
 3 성탄의 기쁨은 누구도 앗아가지 못합니다 - 전쟁 중에도 말이지요!



# 하느님 사랑과 자비!

**악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손은 사랑의 나눔이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2023.11.19.): cpbc 가톨릭평화방송-TV 매일미사 강론



방송 다시보기



연중 제33주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탈렌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마태25,19) 분명 “오랜 뒤에”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하게 할당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탈렌트’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탈렌트를 일반적으로 인간의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경기에 타고난 능력을 가진 선수를 가리켜 ‘타고난 영재’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훈련, 학습, 노력을 통해 그 능력을 배양하고 확장하거나 반대로 소홀히 함으로써 잃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탈렌트’라는 말은 오늘날의 달러, 원, 유로와 같은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두 명의 종들이 ‘탈렌트-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돈 욕심, 돈 중독에서 비롯된 탐욕적인 투기를 조성하신 것은 분명 아니지요. 왜냐하면 ‘탈렌트’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맥락에서 본다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느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등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요. 따라서 시간도 이러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제공합니다. 바로 여기서 기도하며 묵상해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1독서 잠언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훌륭한 아내가 주어진 시간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봅시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잠언31,20)

‘탈렌트-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그분의 뜻대로 투자하는 것은 바로 ‘탈렌트-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내가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며 도와주어 그 가치가 산호 보석보다 높았던 것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에게 손을 펼쳐 내밀고 도와야만 합니다.

연중 제33주일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포하신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를 만날 때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신 교황님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특별히 언급하셨습니다. ‘전쟁 상황에 휘말린 이들’, ‘수많은 노동자가 받는 비인간적인 대우’, ‘극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많은 가정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투기 행위’가 그것입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공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무력 분쟁으로 무고한 이들이 죽고 심하게 다쳤으며 집이 파괴되고 직장을 잃어 생계가 막막한 끔찍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에 휘말린 가난한 이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의 손을 펼치고 내밀어 도와복음 속 주인의 칭찬을 우리도 세상 마지막인 그날과 그 시간에 마땅히 들어야겠지요.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마태25,21,23)

예수님께서 태어나 사셨고 걸으셨던 곳, 거룩한 땅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분쟁이 해결되고 참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고통과 두려움만이 아닌 믿음과 희생 그리고 너그러움에 대한 소식이 이어져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악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손은 사랑의 나눔이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과 물질적 도움이라는 여러분의 소중한 ‘탈렌트’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원조 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id to the Church in Need

문의 02-796-6440, 010-7475-6440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